

# “정당한 폭력은 존재한다”... 불교적으로 용인 안돼

## 불교로 읽는 古典

###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 ①



김호성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우리 교계의 신문이나 잡지에 많은 글을 써왔다. 100% 불교 안에서 불교를 말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교에 대한 글이 아닌 글을 청탁받았다. 이제 우리 불교도 드디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인문교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사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힌두교'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루는 책은 <바가바드기타(Bhagavadgītā '신의 노래')>라는 힌두교 경전이다. 줄여서 <기타>라고 약칭(略稱)하는 이 책은, 힌두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는 경전이다.

힌두교의 경전을 힌두교도가 아닌 불교도가 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힌두교의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스스로 갖고 있던 불교적 가치관이나 신앙을 내다버리게 될까? 어떤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백지상태가 되어서 그 경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불교는 내다 버리고, 힌두교로 그 속을 채워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안전하고도 안전한 길은 아예 안 읽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안전하진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교의 원(圓) 자체는 넓어지지도 커지지도 못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내가 읽을 책이 옛날(기원 전 2세기~기원 후 2세기), 인도에서 성립된 힌두교라는 다른 종교의 경전임을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을 나 자신은 20세기에,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불교도임을 인식한다. <기타>나 그것을 읽는 나(독자)나 공히 시간적·공간적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컨텍스트(context)'라 부른다. 그러니까 나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나는 <기타>의 컨텍스트를 짚어가면서 <기타>를 읽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과연 <기타>의 컨텍스트는 나의 컨텍스트를 만나서 어느 만큼 생존 가능할 것인가? 나(독자)는, 나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기타>를 읽는만큼 나의 컨텍스트에서 볼 때 수용(受容)하기가 꺾끄러운 것들은 괄호를 쳐버리거나, 지우개로 지우면서 <기타>를 읽을 수밖에 없다. 사성계급(카스트)제도와 같은 것도 그렇지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폭력에 대한 <기타>의 관점이다.

#### <기타>, 비폭력인가 폭력인가?

우리는 흔히 인도를 비폭력의 나라로, 힌두교를 비폭력의 종교로 알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된 데에는 비폭력을 주창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인도 독립을 추구해 갔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9) (덕분)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간디는 경건한 힌두교도였다. 뿐만 아니라, 평생 <기타>를 읽고 말하고 썼다. 그는 “<기타>는 나의 정신의 사전(spiritual dictionary)”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뇌가 있을 때는 <기타>를 읽었고, 그럴 때마다 <기타>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 대중적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

#### “폭력 안된다” 주장한 아르주나

#### 전쟁으로 이끄는 내용... 폭력 용인

#### 비폭력주의 간디 “내 정신의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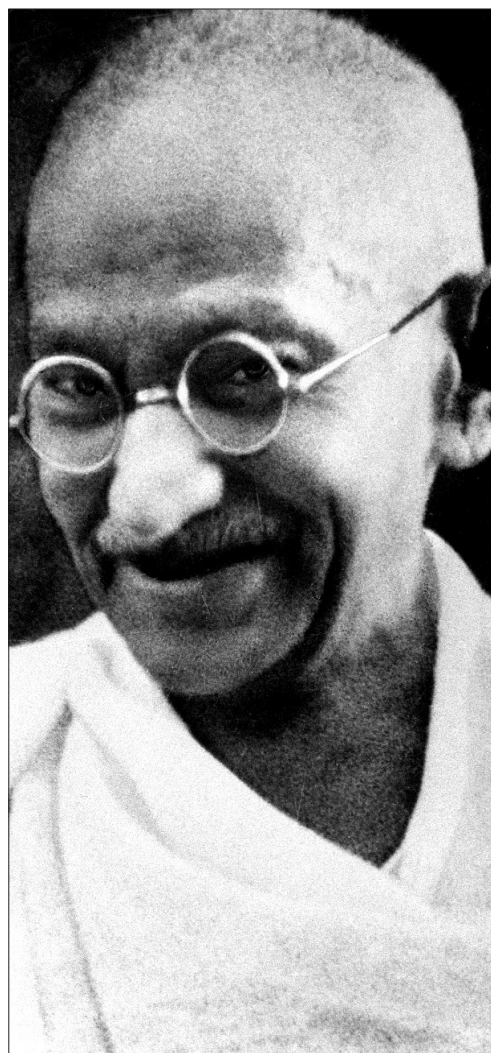
#### 자기모순 극복하고자 한 시도일 듯

#### 비판적 '돌아보기' 통해 이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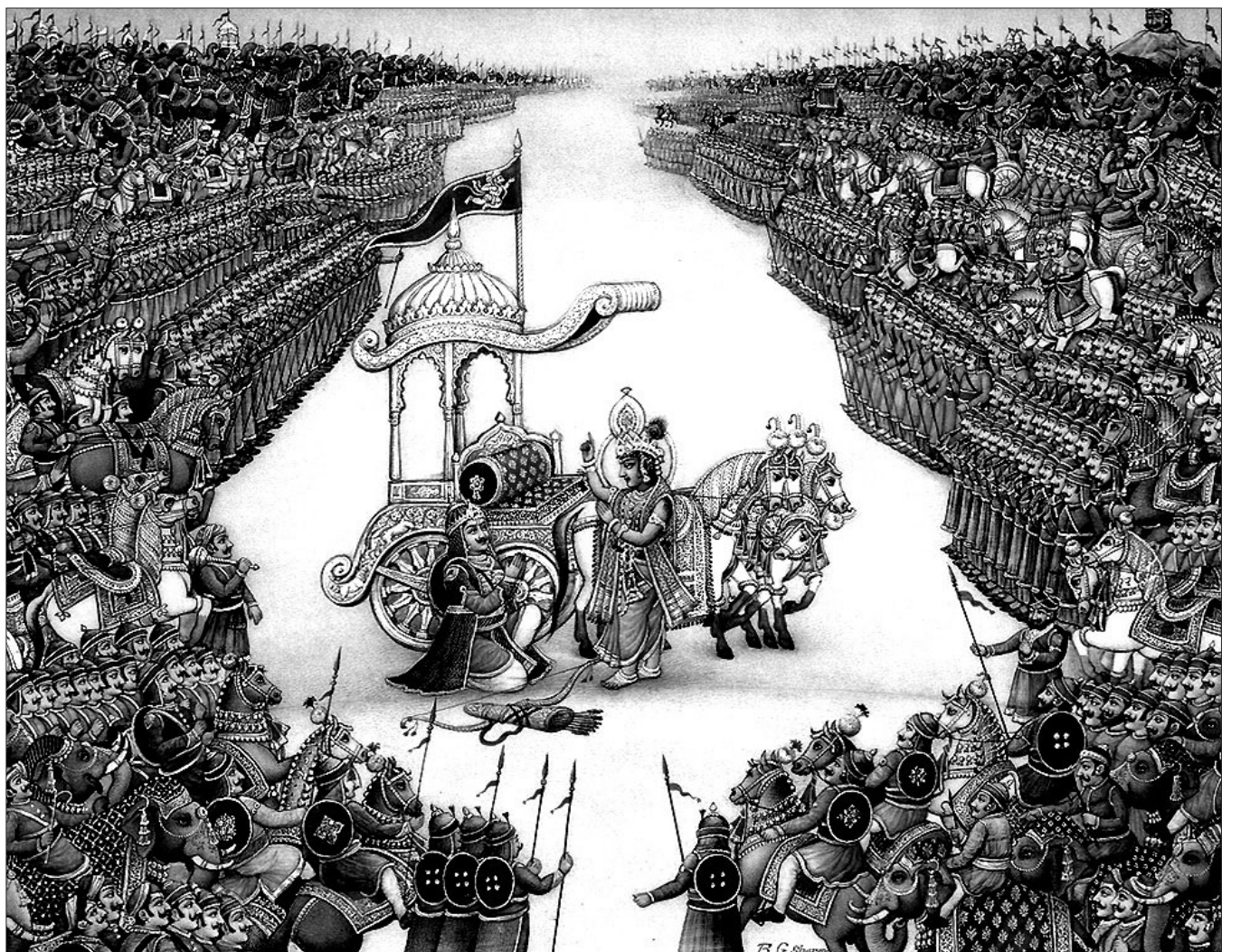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간디의 입장과 <기타>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이다. “갈다”라고 주장하고 강변한 것이 간디 자신이지만, 필자가 볼 때(나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볼 때에도)양자는 다르다. 간디는 비폭력을 말했음에 비하여, <기타>는 폭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기타>라고 해서, 비폭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이다. 사회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는 폭력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이 힌두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상대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럴 때 나 역시 상대를 때리지 않는다. 이것은 비폭력인가? 아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 비폭력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때렸다. 나는 이유로



비폭력주의자로 잘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사진 왼쪽)와 <바가바드기타>를 묘사한 그림(사진 오른쪽). 비쉬누의 화신 크리슈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아르주나를 설득해 전쟁으로 이끄는 게 주 내용인 <바가바드기타>를 비폭력주의자 간디가 애독한 경전인 것은 아이러니다. 완전한 비폭력 주장하는 불교적 컨텍스트로는 용인된 폭력을 중하는 <바가바드기타>를 비판적 견지에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없이 맞았다.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나도 상대에 맞아서 때리고 싶어진다. 이때 내가 상대를 때리면, 나는 죄를 짓는가?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정당방위는 비폭력인가? 아니다. 그럼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상대가 나를 때렸다. 그렇게 맞고서도 상대를 때리지 않는다. 그것이 비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비폭력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기타>는 그런 의미의 비폭력을 주장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다르마)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력에 대한 폭력이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폭력, 행사해야 할 폭력인 것이다. 그러한 폭력은 용인된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한 성스러운 의무(다르마)를 띄고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신이다. 신의 아바타(avatar, 化身)이다. 그러므로 <기타>는 “결단을 내리고서 전쟁을 위하여 떨쳐 일어나라”(2: 37)고 설한다.

이렇게 성전(聖戰), 즉 정의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기타>는 갖고 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사촌 형제들의 싸움에서, 과연 상대편의 전사들을 다 죽이고서라도 우

리는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가?

<기타>의 주인공 아르주나(Arjuna)는 회의(懷疑)를 한다. 그리고서는 활을 내다버리고 땅에 주저앉는다. “그들이(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소”(1: 35)라고 말한다. 이렇게 전쟁을 못하겠다고 하는 아르주나를 설득하는 신(비쉬누)의 아바타 크리슈나(Krishna)의 말씀이 바로 <기타>의 내용이다.

결국 아르주나는 다시 활을 손에 잡게 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힌두교의 사회윤리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크리슈나의 논리이다.

앞에서 나는, 상대가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비폭력이라 말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소”라고 했던 아르주나의 그 당시 태도는 비폭력인 것이다. 나중에 크리슈나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참전하게 될 때, 아르주나는 비폭력으로부터 폭력으로 전향(轉向)하는 셈이 된다.

#### 회의, 비폭력, 그리고 붓다

그럼 우리의 붓다는 누구 편일까? 회의할 당시의 아르주나일까, 아니면 그런 아르주나를 설득하는 크리슈나일까?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라. 원한에 의해서는 원한은 마침내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법구경>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붓다는 회의하는 아르주나의 입장이 옳다고 손들어 준 것으로 나는 본다. 즉 불교의 컨텍스트에 비추어 보는 한, 불교도로서의 나는 <기타>를 아르주나의 회의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서 읽게 된다. 이러한 독법(讀法)은 <기타>를 해체(解體)하여 읽는 것이고, 반(反)<기타>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타>에 대한 간디의 입장이다. 간디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폭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기타>를 “정신의 사전”이라 불렀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모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비폭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폭력을 용인하는 텍스트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간디의 <기타> 해석은 바로 이러한 자기모순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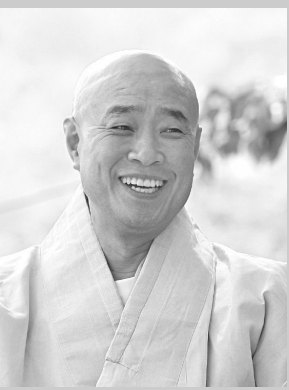
나는, 불교학자의 눈으로 <기타>를 바라볼 때 간디의 <기타> 해석은 틀렸다고 본다. 간디가 비폭력을 주장하려면 할수록, 간디는 <기타>를 의지하는 대신에 비판해야 옳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비폭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았다. 그럼 상대가 나를 먼저 때리지 않

았다. 혹시라도 나를 때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를 내가 먼저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비폭력일까? 폭력일까? 그러한 논리는 마치 방위에 정당방위가 있는 것처럼, 공격에도 “정당 공격”이 있다고 말하는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말도 안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10여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논리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그러한 미국의 ‘정당 공격론’에 동조하지 않았던가.


말하자면,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폭력의 용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역시 그러한 폭력용인의 논리 역시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폭력을 설하는 <법구경>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려고 한다면, 그런 입장을 갖는 불교도로서 <기타>를 읽을 때는 ‘폭력 용인’의 입장을 지우개로 지우고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뒤에도 읽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불교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 부분을 나는 ‘텍스트(text)’라 부른다. 그러한 텍스트로서의 <기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 보기로 하자.



**월호스님 법문 및 사인회**  
“삶은 환타지다”  
—  
4월 20일(일) 오후 3시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마가스님 힐링법회 및 사인회**  
“알고 보면 괜찮은”  
—  
4월 21일(월) 오전 11시

사찰도서관 지원을 위한

# 제7회 불교 도서전

2014년 4월 19일(토) ~ 4월 25일(금)  
조계사 대웅전 옆(7일간)

● 불교도서 신간 및 베스트 500여종 전시 및 판매 **전 도서 20% 할인판매**

● 행사 수익금 전액은 사찰도서관에 지원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관 | 불교출판문화협회  
후원 | 월간 불광,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행사 기간 중 구입 및 문의  
전화 | 010-2781-6272 팩스 | 02-420-3400  
입금 | 농협 179300-56-119747 김시영

